

아버이의 사랑으로 행복넘치는 밤

여기에 어느 한 나라의 인더베르에 실린 글이 있다. **《밤이 왔다. 지리는 하나 둘 커지는 내온들의 찬연함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고있다. 허나 그안에 담긴 삶들은 깊어가는 밤처럼 암담하기만 하다. 큰불을 집을 잃은지 석달이 되어온다. 나와 우리 가족은 오늘 또 어느 처마아래에서 이밤을 보내야 할가.》** 이것은 비단 한지에 나앉은 한 가장만의 절망의 목소리이다.

지구의 자전으로 오는 밤을 두려워하는 불행한 삶들을 행성의 어디에서나 흔적할 수 있다.

집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다가 지하도로 걸기러이 지합을 퍼놓고 그우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극심한 생계난으로 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악성병마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 남을 강탈하려고 밤을 기다

리는 강도들의 과력으로 되지 않음에 하는 두려움으로 공포의 밤을 보내는이들, 한 푼의 돈에 청춘의 넘과 육체를 팔며 **《밤꽃》**으로 사는 처녀들에게는 밤이 즐거울수 없고 두려운것이다.

행성의 여기저기에서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술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속에 밤을 보낼 때 동방의 조선에서는 행복의 밤, 환희의 밤이 펼쳐지고있다.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들이 울려나오고 공인과 유원지들에서는 기쁨과 환희에 젖은 사람들이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위훈을 세운 지난날에 대한 추억과 보다 찬란할 레일에 대한 희망을 꿈에 담고 단잠에 든 사람들도 있다. 평양의 화성지구를 비롯하여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깊은 밤에도 인민의 락

원, 인민들이 복락을 누릴 행복의 보금자리를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불꽃으로 불야성을 이루고있다. 자연의 태양은 모습을 감추었지만 세계를 경탄과 흥분으로 들끓게 한 조선인민혁명군장군 90동경축 열병식을 비롯한 위대한 승리자들의 경축행사들도 천지를 대낮처럼 환히 밝히며 진행되고있다.

이번 전승절에도 승리로 자랑하는 환희로운 밤이 펼쳐졌다.

어느 한 작가가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밤은 지새지 말라는 노래가 저절로 울려나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다.

과연 어느분이 이렇듯 눈부신 밤을 펼쳐주셨는가.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현실과 로고의 이야기들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밤들에 흐르고있다.

자정을 가까이하러 어느 깊은 밤 한대의 새형의 무궤도전차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다.

그 무궤도전차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고계시다.

결만 보아서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고,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니는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시며 공화국의 로동계급이 자제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궤도전차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민음이 간다고, 완충장치가 좋고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궤도전차의 의장품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 보셨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을 그려보시며 문수물놀이장전

설장을 찾으셨던 그밤에도 그이께서는 건축물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인민들이 행복의 요람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있을 때 인민의 그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려고 무수한 밤을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민들의 행복의 꿈만을 꽃피워주셨던 것이 아니었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치신 송고한 헌신과 로고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나라의 밤들에는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최전선대에 위치한 개성시에 나라의 방역장벽에 파뢰구를 벌수 있는 뜻밖의 위험이 조성되어 봉쇄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성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녀려지시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으며 어느 날 깊은 밤에는 전화로 시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어 시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게 따듯이 돌봐줄데 대하여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었다.

돌발적인 비상방역상황으로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쳐왔던 최근 몇달여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하루라도 마음을 놓으시고 중요회의들을 열어 소집하시고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깊은 밤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만사들의 심장을 뜨거운 격정으로 뭉개 하였던가.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안일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이던가. 그 무수한 밤에도 인민의 아버지께서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을 떠올리시기 위해 헤쳐가신 위험천만한 화신길, 격랑하는 바다길들이 수놓아져있고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을 안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주체병기들의 눈부신 화광이 비껴있다. 참으로 공화국의 모든 밤들은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기 위해 바치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의 끝없는 사색과 로고, 헌신의 시간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밤은 당중앙창가에서 울려나오는 불빛으로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것이다.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절세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의 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값없는 승리에 대한 추억, 보람찬 생활에 대한 기쁨, 더 밝은 레일에 대한 희망을 아름답게 새겨주고있는 것이다.

단숨에 오르신 수백개의 계단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사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오랜 시간 여러 살림집들에 둘러서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17층에 있다는 실내휴식터에 올라가보라고 하시며 계단쪽으로 향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운전중에 있는 승강기가 가동할 때 올라가 보시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운동삼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며 두세개씩 건너질으시며 계단을 오르신것이다.

17층 실내휴식터에 오르신여 열려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시며 경치가 참 좋다고 환히 웃으시는 그의 웃음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단 한번의 멈춤이 없이 단숨에 오르신 계단은 2백수십여개였다.

2백수십여개, 그것은 단숨에 수자이기 전에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인민사랑의 높이였다.

43℃의 고온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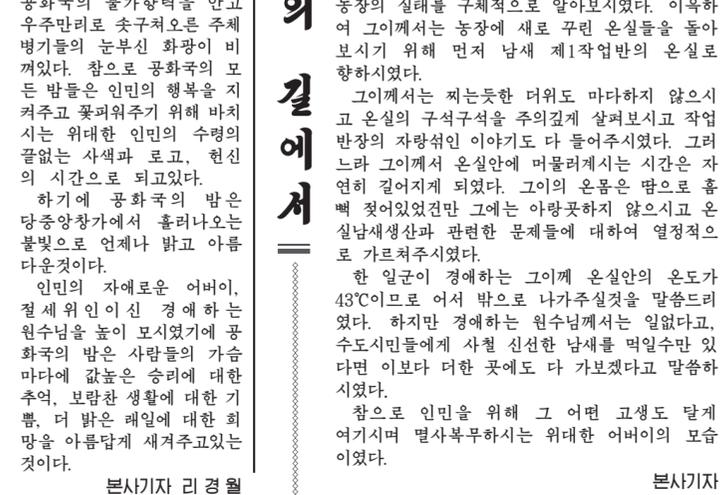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제103(2014)년 6월 어느날 평양교외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린 온실들을 돌아보시기 위해 먼저 남새 제1작업반의 온실로 향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는듯한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실의 구석구석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작업반장의 자랑쉬인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었다. 그러느라 그이께서 온실안에 머물러계시는 시간은 자연히 길어지게 되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실내생산물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온실안의 온도가 43℃이므로 어서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말씀드리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인민을 위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멸사복무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본사기자

평도의 천재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신 자력갱생의 불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가꾸어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당당자, 자강력의 체현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자력갱생의 투쟁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걸출한 평도자이다.

자력갱생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된 고귀한 투쟁정신이고 전통이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다.

공화국이 중증첩첩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쳐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력사승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오계신다.

주제104(2015)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중재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이 공장으로 말 하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평도명에 1960년대초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자제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평도명에 자력갱생의 전통을 고수해온 공장이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작로동자들이 레무땀땀을 흘리며 자제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창조기쁨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날 공장 로동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로 만들데 대한 영

에로운 과업을 맡겨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하전동차생산을 빠른 시일에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향과 방법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지하전동차를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자제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는것은 아름답고 반대편 과업이었다. 필요한 부족품만 해도 수천종에 십여만 수천개나 만들어야 하고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4~5년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진행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곳 로동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시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한번도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품들을 자제의 힘, 자제의 기술

로 만들면서 성공의 언덕에로 올라왔다.

이해 10월 자제의 힘으로 특색있는 지하전동차를 생산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시어 또다시 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지하전동차를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지하전동차시운전장 지도해주시었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자원에 의거한 현대화, 이것이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력갱생의 힘찬 동음소리는 이렇듯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헌신과 로고에 떠올린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체로 힘주어 천명하신 자력갱생, 자급자족!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력갱생을 변형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제의 힘과 기술로 더 좋은 앞날을 앞당겨올것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70년세월을 가까이하고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10년이 여러번이나 바뀌었지만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영웅정신은 승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날로 더욱 빛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적인 해인 주제101(2012)년 7월 27일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승절경축행사가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어제 그뿐이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전회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꾸러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평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사립에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로병들을 위하여 력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감동깊이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아래 공화국의 전쟁로병들의 삶은 가장 값높은 삶, 승리자의 영광찬 삶으로 빛나고있다.

공화국의 전쟁로병들처럼 긍지높은 세대로 불리며 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전쟁참정자들은 그 어디에서든 찾아볼수 없다.

이번 전승 69돐을 기념하는 성대함 경축공

승고한 한민족의 리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로병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의 별장 경비를 서주거나 자기들의 가슴에서 빛나던 훈장들을 팔았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있을 때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는 전쟁로병존대의 이 화복들은 전승세대가 창조한 위대한 정신과 승리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낳은 승고한 화복이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영웅적인 전승세대의 넘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더욱 강인하게 투쟁함으로써 동지들이 사수한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로병동지들이 앉이게시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여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며 부디 귀하신 몸들을 보충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가 끝난 후 전정로병들이 양덕은천문화휴양지의 귀빈으로 출거는 나날을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추복받은 전승세대의 삶은 변형하는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그들의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되어 공화국의 발전을 계속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조성국

관상 화선군의들의 경례

얼마전 신장영으로 앓고있던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집근처에 있는 약국에 갔을 때였다.

약국에 들어서자 인민군 군인들이 《안녕하십니까?》 하며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인민사수전의 전장에 서있는 군인들의 경례를 받고보니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가슴속에 고쳐졌다.

인민군 군인들의 경례, 그들은 방역대전의 사활이 걸린 약품보장전투에 인민군대 군의부분 력량을 투입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승고한 사명에도 맞을뿐 아니라 인민

군대의 위상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수도 방역전에 인민군대의 군의력량을 과감히 투입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수도의 방역전장으로 달려나올 때에도 죽기앞에서 경례를 했다.

그 경례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전투명령을 결사로 관철하여 엄중 승리의 개기가 다름아닌 조선의 심장, 수도 평양에서부터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는것을 엄숙히 다진 맹세가 담겨져있었다.

또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길에서 한몸그대로 성체가 되고 방탄벽이 되겠다는 철석의 의지, 인민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진정이 비껴있었다.

그 맹세, 그 의지가 담긴 경례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니 결사의 헌신으로 천만자식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에 저절로 눈금이 젖어들었다.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평도적역할을 검증 받을 시기가 왔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자식들이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그 길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니 그이의 절절한 음성,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신 가슴뜨거운 사연, 유열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온 하루 끊임없이 드나드는 약

국들에 몸소 나가시어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던 그날의 간곡한 당부...

절세위인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들여갈 마음을 안고 인민군 군의들은 약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듯이 경례를 하고 환자들의 집을 찾아가도 경례부터 하며 인민들에게 열화같은 정성을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아하는 인민군대가 오늘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방역대전의 최후대, 돌격대, 방탄벽이 되고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어렵고 힘들 때면 군대를 먼저 찾고 제일 반긴다. 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나이에 군인들은 또다시 경례를 하였다.

그 경례에서 위대한 아버지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더욱 심장으로 느꼈다.

민경남



조성국